

1

2025. 2. 2. 오후 1 시,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 설교: 임동진

본문: 다니엘 Daniel 4:34-37

제목: 하늘을 우러러 보라

설교 시간 35 분, 11 쪽: 10~20

**(표준새번역) 4:34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ESV) 4:34 At the end of the days I, Nebuchadnezzar, lifted my eyes to heaven, and my reason returned to me, and I blessed the Most High, and praised and honored him who lives forever, for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and his kingdom end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4:35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4:35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accounted as nothing, and he does according to his will among the host of heaven and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none can stay his hand or say to him, "What have you done?"

4:36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4:36 At the same time my reason returned to me, and for the glory of my kingdom, my majesty and splendor returned to me. My counselors and my lords sought me, and I was established in my kingdom, and still more greatness was added to me.

4:37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4:37 Now I, Nebuchadnezzar, praise and extol and honor the King of heaven, for all his works are right and his ways are just; and those who walk in pride he is able to humble.

시인 윤동주를 아십니까? 한국 역사가들과 문학가들, 국어 수업에는 잘 이야기 하지 않지만, 윤동주는 기독교인입니다. 1917 년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과 친척들 대부분은 개신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가 다녔던 학교도 대부분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계열의 민족 학교인 ‘명동학교’와 평양 장로교계 학교인 ‘은진 중학교’(송실 중학교)를 다녔고,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역시 기독교 학교입니다. 교회에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할 때에도 일본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릿쿄 대학교에 입학했고, 편입한 도시샤 대학교 또한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기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까운 친구인 정벽옥은 윤동주가 신앙심이 깊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증언합니다.

한국에서는 윤동주를 저항 시인, 민족시인, 서정 시인으로 부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시 ‘서시’를 시대적-민족적 배경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독교적시가 분명합니다.

첫 소절,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늘, 혹은 하나님만 보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늘 곧 하나님을 우러러 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봅니다. 그리고 내 옆도 돌아봅니다. 지금을 볼 뿐 아니라, 어제(과거)도 보고, 미래도 내다 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의 의미를!

**하늘을 우러러 보다**

본문 34a 에서 느부갓네살도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야 정신을 되찾습니다.

(표준새번역) 4:34a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

(ESV) 4:34a At the end of the days I, Nebuchadnezzar, lifted my eyes to heaven, and my reason  
returned to me, ...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다**

34 절,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가장  
높으신 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 통치가  
영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대대로 이어진다고  
고백합니다.

(표준새번역) 4:34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ESV) 4:34 At the end of the days I, Nebuchadnezzar, lifted my eyes to heaven, and my reason  
returned to me, and I blessed the Most High, and praised and honored him who lives forever, for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and his kingdom end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35 절, 하나님에게 모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4:35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4:35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accounted as nothing, and he does according to his will among the host of heaven and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none can stay his hand or say to him, "What have you done?"

37a 절,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십시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의로십니다.

4:37a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

4:37a Now I, Nebuchadnezzar, praise and extol and honor the King of heaven, for all his works are right and his ways are just; ....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계 4:10, 하늘에서 성도의 대표 24 명의 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쓰워져 있는 면류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명예, 신앙을 지키고 받은 상,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그것을 벗어서 보좌 앞으로 던집니다.

요한계시록 4:10 스물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Revelation 4:10 the twenty-four elders fall down before him who is seated on the throne and worship him who lives forever and ever. They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saying,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4:11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Revelation 4:11 "Worthy are you,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r will they existed and were created."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 **나를 낮추고, 징계까지도 받아들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나를 낮추는 자세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난 주 살펴보았던 것 처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세입니다. 교만하면 능력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능력주시고, 겁쟁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쓸데가 없습니다.

37b 절,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4:37b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4:37b ... and those who walk in pride he is able to humble.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납작  
업드려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또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세 곧, 자기를 낮추는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징계까지도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히 12:6,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표준새번역) 히브리서 12:6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ESV) 12:6 For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and chastis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7 절, 혹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나를 대하시며  
훈련시키십니다.

(표준새번역) 12:7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ESV) 12:7 It is for discipline that you have to endure. God is treating you as sons. For what son is there  
whom his father does not discipline?

만약 내가 하나님의 징계, 곧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개역개정)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ESV) Hebrews 12:8 If you are left without discipline, in which all have participated, then you are  
illegitimate children and not sons.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교만했던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욥 5:17, 느부갓네살은  
복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욥기 5:17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Job 5:17 "Behold, blessed is the one whom God reproves; therefore despise not the discipline of the  
Almighty.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 곧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

### ✓ 지혜와 회복을 주십니다

34 절을 개역개정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표준새번역) 4: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ESV) 4:34 At the end of the days I, Nebuchadnezzar, lifted my eyes to heaven, and my reason  
returned to me, and I blessed the Most High, and praised and honored him who lives forever, for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and his kingdom end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교만해졌고,  
 하나님은 그를 짐승처럼 들판에서 7 년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회복되었고,  
 36 절,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으며, 예전의 참모들과 지혜자들과  
 신하들이 다시 찾아왔으며, 이전보다 더 영예를 받고  
 왕위까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4:36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4:36 At the same time my reason returned to me, and for the glory of my kingdom, my majesty and  
 splendor returned to me. My counselors and my lords sought me, and I was established in my kingdom,  
 and still more greatness was added to me.

37b,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실 뿐 아니라,

4:37b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4:37b ... and those who walk in pride he is able to humble.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을

✓ **높여 주시고 낮아 주십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바벨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미국의  
 하나님이시며, 한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에서도 하나님이며, 저 태평양 섬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5b,  
 누구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며, 26b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높여  
 사용하십니다.

(표준새번역) 4:25b ... 일곱 때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ESV) 4:25b ... and seven periods of time shall pass over you, till you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the  
 kingdom of men and gives it to whom he will.

4:26b ...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4:26b ... your kingdom shall be confirmed for you from the time that you know that Heaven rules.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더더욱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14: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ESV) Luke 14:11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삶의 방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멩에를 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한알의

밀알이 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나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부합니다.

**(표준새번역) 베드로전서 5:6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ESV) 1 Peter 5:6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so that at the proper time he may exalt you,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은 낮추시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십니다.

내가 그 인간이 나를 무시할 때에도 참아준 거, 그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뒤에서 어떻게 도와 주고 챙겨 주었는지, 그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알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나를 기억하시고 높여

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No 라고 말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밀알이 되어 섬긴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나쁜놈을 만나셨습니까?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악당(빌런) 같은 진상을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직접 여러분 손으로 보복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 그 인간들 허리를 꺾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방법입니다, 시 109:8~13 무서운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표준새번역) 시편 109:8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ESV) Psalm 109:8 May his days be few; may another take his office!

9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9 May his children be fatherless and his wife a widow!

10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져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10 May his children wander about and beg, seeking food far from the ruins they inhabit!

11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 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11 May the creditor seize all that he has; may strangers plunder the fruits of his toil!

12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12 Let there be none to extend kindness to him, nor any to pity his fatherless children!

13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다윗의 방법의 핵심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며, 악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갚아 주십니다.

## 정리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까지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높이시고 다 갚아 주십니다.

## 기도: 하나님 앞에서

- 하늘을 우러러 보는(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리에서 있게 하소서
-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지혜와 회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갚아 주소서